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 As Related to Establishment Family and Expanding Family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金 才 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Jac Kyeong Kim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文 淑 才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c Moon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해석

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factors that influence marital conflict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to predict the future stage of establishment family and extending family, based on the theretical model by system approach.

For this pourpose, 336 couples of urban households in Seoul were selected.

The data were analysed throug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T-test, F-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 :

The Martial Conflict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of surveyed couples were above middle level. It had significantly differences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husband and wife's educational levels, husband and wife's occupations, and family income.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had significantly differences according to marital conflict. The marital conflict is higher, life satisfaction is lower.

In this study, it were appeared that the amount of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had differences according to life cycle stages, husband and wife's educational level, husband and wife occupations, and family income, and so that the conflict of phycho-social system was

more affected on family life satisfaction that of managerial system.

Such results were indicated that the birth of children was the critical family event affecting on family life satisfaction on and the marital conflict. But the conflict by family's given resource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also as an environment affection on the family system.

I. 서 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오늘날의 부부생활은 확대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핵가족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애정과 친밀감을 지속시키려 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압박에 대해 부부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대처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생활의 목적은 전체 가족 구성원의 최대한의 욕구충족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과 가족역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창조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 가정은 가정 특유의 상황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가족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원들의 무한한 욕구에 비해 인적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원배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은 때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극한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가정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오히려 가정의 응집과 결속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어 가정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대처 방안을 고려한다면 가족원의 만족은 극대화될 수 있다.

더우기 인간은 Portman(1956)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미분화되고 완전하지 못한 생리적 조산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떠나거나 사회·경제·법률적 조직사회인 거시환경과의 관계를 벗어난 단독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생각한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갈등이란 최소한 두사람 이상의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보면, 부부갈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포함한 전체 가족 구성원을 체계론적 형식에서 가족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가정생활의 역동성과 가족원의 활동을 개별 가족원과 전체

집단의 생활양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생활주기와 관련지어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부갈등이나 결혼만족도를 측정 한 연구(김은숙, 1983; 김혜경, 1987; 강은령, 1988; 최규련, 1988; 왕석순, 1989)들은 주로 가족학,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연구의 초점은 가족구성원 혹은 부부 각자의 상황변수만을 고려했거나, 한 배우자 특히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부의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응에 대한 연구(최신덕, 1973; 이동원, 1981; 이신영, 1983; 이영실, 1989)들이 대부분으로서 부부 모두의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정도나 만족도를 측정 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정생활에서의 갈등과 만족도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해 보면 인간의 일생주기동안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가정생활주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환적인 사건은 결혼, 자녀의 출산,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만족도의 경우 형성기에서 부터 마지막 노년기 가정까지 U자형의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형성기와 자녀출산후인 확대기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지적들을 통합해볼때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와 가정관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의 갈등을 체계론적 입장에서 규명하여 투입변수와 부부갈등의 정도, 가정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체계이론에 입각해서, 가족의 형성과 자녀출산 등의 생활주기 전환에 따른 변화에 직면한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선별해서, 각 가정이 지닌 고유의 사건과 요구를 투입으로 보고 관리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을 추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요인들이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한 연구결과는 새로이 부부가 되거나

부모가 되는 단계에 도달한 가정에 바람직하고 창조적인 관리과정을 제시하여, 환경과 개인의 변화가 발생할 때 더욱 민감하고 유연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갈등의 개념과 유형

Marx는 갈등을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구분지워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에 물질(제한된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대립, 투쟁, 경쟁상태로 보았고 Simmel(1955)과 Coser(1956)는 갈등을 더 이상 '질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제도화된 유형들의 생동성과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사회체계의 계속적인 적응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다. 한편 Sprey(1969, 1971)는 갈등이론을 가정에 적용시켜, 과정으로서의 갈등이란 개인 또는 집단들이 희소한 자원, 논쟁이 되는 수단, 상반된 목표, 혹은 위의 세가지를 놓고 대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들 통하여 갈등을 가족체계라는 하나의 구조속에서 부부가 서로의 자원의 차이와 기본 목표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오해나 상호이해의 결여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 방해받는 어려움의 정도, 혹은 긴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Coser, 1956).

이러한 갈등은 그 발생의 원인, 즉 차원과 방향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른데 대표적인 것으로 Rice유형, Bordin-Pepinsky의 유형, Collins의 유형 등이 있다.

Rice(1976)는 갈등을 개인내 심리적 갈등과 상황적 또는 환경적 갈등으로 구분한다. 개인내 심리적 갈등은 개인 내부에 있는 상반된 충동, 본능, 가치 등에 의해서 자신과의 투쟁의 결과로 생기며, 개인간의 심리적 갈등은 개인의 욕구가 상대에 의해 좌절될 때 나타나는 공격성, 회피, 해체 등이 반복되어 발생한다. 한편 상황적 또는 환경적 갈등은 기대치 않았던 사건들에서 오는 생활조건상의 이 유들로 발생한다. 그러나 Bordin-Pepinsky(1948)는

갈등을 문화적 갈등, 대인적 갈등 및 내부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문화적 갈등은 자신의 요구나 규범과 상이한 문화체계와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 대인적 갈등은 감정적으로 결합된 집단내에서 개인이 받는 압력으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내부적 갈등은 개인내의 동기적 긴장에서 자기에 대해 좌절이나 괴로움을 주는 원천에 대해 감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했다. 한편 Freud에 갈등이론의 기원을 두고 있는 Collins(1971)는 갈등이 가정생활의 주요한 두가지 차원, 즉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사이의 성적인 투쟁과 권력투쟁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갈등을 성적인 충화에 의한 갈등(성역할 계층화)과 연령적 충화에 의한 갈등(경험·신체크기·힘·능력 등 여러가지 자원 등에 의한 지배)의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각 학자들에 따른 갈등의 유형분류 중 부부간의 역할관계나 수행은 가정이라는 한 체계 내에서 성에 의해 분리된 각자의 영역이고, 고부관계나 처가와와 문제 등은 연령에 의해 분리된 영역이므로 Rice(1976)와 Collins(1971)의 유형에 따라 부부관계내에서의 갈등과 환경과의 작용에서 벗어지는 갈등, 즉 각 가정의 요구와 자원에 의해 영향받는 갈등, 성적충화에 의한 갈등, 연령적 충화에 의한 갈등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과 시가나 처가의 부모들과의 세대간의 갈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2. 가족체계의 분석틀

가족체계는 Gross, Crandall, Knoll(1980)과 Deacon & Firebaugh(1988)이 제시한 접근법이 대표적인데 특히 후자에 의하면 가족체계 내의 하위체계는 심리사회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제로 구분하여 그 상호작용을 규명한다. 심리사회적 하위체계의 투입요소에는 물리적 환경, 사회와 문화적 규범, 지역사회 지원 체계-교육, 종교, 여가등-가족의 목표, 이용가능한 경제적 기회, 혹은 생활 조건, 생활경험의 질, 그리고 대인관계 특성이 포함되며 관리적 하위체계는 각 가정의 자원과 요구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역동적인 체계이다. Rice & Tucker(1986)는 이러한 변화를 내적변화와 외적인 변화로

나누어 가족체계를 강조했는데 가족내에서 생기거나 주로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혼, 임신, 대학졸업, 가정생활주기 단계의 변화, 사망 등은 주로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적변화로서 자연적인 성숙과 가정생활주기 단계의 이행에서 야기된다고 했다. 반면 외적변화는 사회내에서 조장되는 것으로 Deacon & Firebaugh(1988)의 광역환경, 근접환경의 개념과 동일한 맥락으로 사회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기술체계, 자연적·인위적 체계로 부터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가정생활은 심리사회적 체계와 관리적 체계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가족원의 목표와 요구를 달성하고 가정울 둘러싼 많은 환경들에 의해 변화하는 인간발달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발달적이고 개인상호간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응집성과 적응력의 차원을 통합하는 Deacon & Firebaugh(1988)의 가족체계의 모형은 가족의 하위체계가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체계내적인 역동성인 응집성, 적응력, 그리고 기능성의 발전을 나타낸다.

투입된 자원과 심리사회적요구의 수행으로 나타나 가시화된 가족체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정과 연관된 모든 노동(home-related work)은, 체계이론가들이 대부분 중요시했던 활동과정으로서 생활의 질에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결과 산출에 있어서 부적인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입으로서의 자원 : 가족원이 지닌 시간적·정신적·인지적·신체적 자원은 가사노동의 수행방법과 시간, 반복성 여부를 결정하며 인적자원의 외의 물리적 설비와 가정소득, 그리고 문화적·사회적 기대와 예기치 않은 사건등도 가사노동과 노동관리에 영향을 준다. 즉 가정의 복잡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가정내에 자녀의 출생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2) 과정 : Gross(1980)는 과정이란 관리적 과정이며, Paolucci(1977)는 적응과정으로 지칭하면서 이것이 곧 관리라고 했다. 또한 Deacon(1988)등은

계획과 수행이라는 실제적 측면부터 과정이 시작 된다고 보았다. 과정중 실행부분, 특히 의사소통과 재정관리, 가사노동만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서로 교류적이므로 내부체계의 힘의 근원이 되는 응집성, 적응성, 기능성의 체계내적 역동성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의사소통상의 문제는 가족원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산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한편 재정관리는 각 가정이 처한 생활주기, 경제적 위험, 소득, 개인의 열망과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세심한 예산계획과 가정생활 전 주기를 포괄할 수 있는 자원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을 세우므로서 안정된 소득내에서 만족할만한 지출과 다양한 위험대처방법을 창출해 냄으로써 건강과 안전보장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재정관리는 가시적인 산출의 측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가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내의 갈등을 예측할 수 있다. 가사노동 분담의 공평성의 경우 남편과 부인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준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부인이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할수록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고 부인에게 덜 불평한다(Brnett and Baruch, 1987). 더우기 남편은 가사노동 회피전략(예를 들면, 가사노동을 대충 수행하는 것)이 많으며,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Weiss, 1987). 즉 남편은 자기에게 유리한 분담에 만족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Schfer and Keith, 1981). 그러므로 가사노동 분담은 남편에게는 부인에 대한 애정감소와 결혼이 주는 스트레스로 부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 부인에 대한 분노, 불평, 비평 등을 표현하게 된다(Cruter et al, 1987). 이와같이 가사노동 분담은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산출 : Deacon & Firebaugh(1988)는 산출부분을 요구에 대한 반응과 자원의 변화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Rice & Tucker(1986)는 비본질적인 산출과 본질적 산출을 나누어 설명했으며, Newton(1984)은 충족된 요구와 사용된 자원을 만족도를 통해서 설명했다. Newton의 견해에 따라 가정생활만족을 산출과 동등한 개념으로 살펴보면 만족

도는 요구에 대한 반응 혹은 목표성취를 재는 척도이며, 목표성취도는 개인들이 주택, 가정의 사회적 지위, 소득, 여가시간, 현재의 작업상황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현재상황(사회적 지위)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적 행위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가사분담 후의 결과, 금전관리에 대한 만족정도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은 생활의 질이란 개념과 동일하게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체계모형을 적용한 연구(부록 1에 제시)를 통하여 관리 행동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투입요소로는 개인의 인적인 자원,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사건이나 요구를 들었고 관리적 과정에서는 수행이나 의사결정면에 치중하였다. 또한

부록 1. 가정관리 체계모형

연구자	투입	과정	산출
Gross, Crandall, & Knoll(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요소 가치 목표 표준 요구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 비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적과정 일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피드백활용 고유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설정 계획 수행 : 점검, 조절, 조정,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요소의 변화 목표와 요구의 충족 자원의 변화 만족감
Heck(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지향지수 6세이하의자녀수 부인의 취업상태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건강 결혼지속연수 부인의 교육수준 가정의 총수입 가정의 불로소득 자본재의 수 집의 소유 여부 가족의 총자산 거주지역 결혼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자 계획활동지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동등의 의사결정지수 부인의 가정생산 시간 남편의 가정생산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청결도만족 식사에 대한 만족 세탁결과에 대한 만족 옷의 양에 대한 만족 식품의 양에 대한 만족 자유시간양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만족
Newton(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성별 가계총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크기 	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달성도 관리행동 만족도 <p style="text-align: right;">} 전체 생활 만족도</p>
Deacon & Firebaugh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사건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 비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설정 활동배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천 통제 : 점검, 조직 의사소통 촉진조건 컴퓨터이케이션 	충족된 욕구와 사용된 자원

산출면은 가족원의 요구충족의 정도, 관리과정 수행상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모형중 관리적 과정의 수행면은 Deacon & Firebaugh(1988)을 기초로 하고, 산출에서의 만족도 측정은 Newton(1984)과 Heck(1983)의 모형을 변형시켜 새로운 체계모형의 설정이 가능하다.

3. 가정생활만족도의 개념과 영역

생활만족도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의 질, 복지, 행복, 만족 등으로 쓰여진다. 첫째, 미국의 환경보호국(Rice & Tucker, 1986에서 재인용)이 내린 정의에 의하면 생활의 질은 현실의 객관적 측면과 생활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평가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복지상태'는 물질·비물질적 성취와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포함한다. 둘째, 생활만족은 생활주체가 경험하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 상태(Liu, 1970)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만족감(Havighust, 1963) 또는 각 생활영역에서의 현실과 목표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나 경제복지의 주관적 측정이다(Diener, 1985).

그러므로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이 정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Kalish, 1975)로서, 부부를 비롯한 가족간의 애정은 물론 원만한 가족관계, 경제적인 안정 및 자녀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이 된다(한상순, 1978). 이와같이 가정생활만족도가 전체 가정의 만족도나 복지라고 정의한다면 결혼만족이나 여가만족등은 가정구성원 중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그 대상이 느끼는 가정생활의 안정이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결혼만족, 재정만족, 여가에 대한만족, 관리만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Hawkin과 James, 1968)이며, 한 사람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정도(Lewis 와 Spnier, 1979)라고 할 수 있는데 Campbell(1976) 등은 결혼만족도를 결혼행복과 구별하고 행복은 감정에 의한 경험을 의미하고 만족은 판단되거나 인지되어진 경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 여가에 대한 만족 : 여가에 대한 만족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고 대부분이 결혼만족이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하나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Duvall(1977)은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은 부부간의 만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Locke(1972)는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레크레이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가치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혼자하는 여가유형이 부부관계의 부적응과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3) 재정만족 : 가정의 재정만족이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느낌" 이라고 Fowler(1972 ; 김숙이, 1988에서 재인용)는 정의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소득지표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득원의 직업, 가족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수, 가족원의 건강, 재정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Yuen(1976)는 가정의 재정만족을 가계소득 적정도와 재정문제 곤경도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이러한 재정만족은 가정의 일반적인 재정상태, 소득, 지불능력, 부채비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iffith, 1985 ; Prather, 1990). 또한 가계소득적정도는 열망하는 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Cantrill, 1965 ; 김연정, 1991)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재정문제 갈등의 원인이 된다(김연정, 1991)고 했다.

4) 관리만족 : 가정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구성원의 생활만족 내지는 가정생활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데 두경자(1990)는 작업자가 관리행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라고 하며 청결 만족, 자녀의 성취에 대한 만족, 가사분담에 관한 만족, 주부의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관리 만족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교육, 소득)와 결혼만족, 가사노동시간, 건강, 가정생활주기, 가족수 등에 따라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창원, 1983; Heck, 1983; Newton, 1984).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부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인으로 부부의 직업, 부부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가정생활주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과정변인으로서의 부부갈등은 심리 사회적체계와 관리적 체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산출변인으로서의 생활만족도는 가정에서 영위되는 생활전반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기대 및 목표의 성취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로 정의하며 특히 관리과정의 수행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 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 부부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 관련변인

1) 투입요소

강은령(1989)과 김혜경(1987)은 부부의 결혼적용이 그들의 직업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Hoffman, 1974; Burke & Weir, 1976; 김혜경, 1987에서 재인용)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계층일수록 부인의 취업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부인이 비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부양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심리적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김혜선(1982)은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해 여성의 직업활동은 공격성, 지배성을 조장시키며, 지배적이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가족부양역할의 분배는 자아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부인의 취업에 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을 조사한 Hoffman & Nye(1974)는 취업부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고, 취업에 대해 남편의 인정을 받을 경우, 반대하는 경우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또 취업부인은 비취업부인보다 직업을 통한 사회적 접촉에서의 즐거움등으로 갈등을 더 적게

느낀다고 하였고 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위와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평가를 높이며 가족내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양을 증가시키고 부인은 직업과 관련된 접촉을 즐긴다고 함으로써 부인의 취업에 따른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변화가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Nye, 1953; Burke & Weir, 1976). 부부간의 적응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유은희(1975), 김혜경(1987), 강은령(1989)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활만족이 낮거나 부부갈등이 많았다고 보고하였으며 Lock(1951)도 역시 결혼생활이 불행한 집단은 행복한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더 많이 지적한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유무는 부부의 일치도, 부부의 응집도를 제외한 모든 결혼적용 영역에서 결혼적용의 차이를 보였는데(Law, 1979; 김혜경, 1987; 강은령, 1989; 이정숙, 1991) 이는 자녀의 출산이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의 긴장을 증가시키거나 부부공유시간의 감소, 부인에 대한 남편관심의 감소를 가져와서 부부의 결혼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로 인한 가사일의 증가, 경제적인 지출, 생활 혹은 활동등의 제한, 어린이 양육방법에 있어서 시모와의 의견차이를 겪고 있어 갈등을 경험(이기숙, 1985)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이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대개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변인으로 교육수준이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성취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며 교육수준의 증가는 결혼만족에 직업과 소득을 연관시키는 매개변수로서 결혼만족의 증가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김혜선, 1982; 김은숙, 1983; 최규련, 1988)고 하였다.

2) 과 정

(1) 심리사회적 체계에서의 부부갈등

가. 부부관계에서의 부부갈등

부부관계는 가족체계에서 심리사회적인 체계의

한부분으로 부부간의 정서적·성적인 친밀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H. Bernard(1981)에 의하면 부부갈등의 근원이 부부 상호간의 적응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혼과정에 대한 의미와 경험은 차이가 있다. Walker(1989)는 이부분을 정서적·성적인 친밀감과 의사소통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부인은 결혼의 복지를 정서적 지지라고 생각하지만, 남편들은 정서적 생활에 무관심하여 부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는데(Blumstein and Schwartz, 1983; Rubin, 1984; Peplan and Gordon, 1985) 이는 Cancian(1987)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부인들은 남편에 비해 결혼생활에서 더 표현적이고 애정적이며, 여성은 친밀감을 애정적 행위로 남성은 섹스나 경제적 원조등을 통한 사랑의 표현으로 인지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여성에게 갈등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척관계에서의 부부갈등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 친척 특히 배우자의 부모와 자기의 양친 그리고 친척과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한다(Udry, 1973; Schulz & Rodgers, 1975; 최신덕, 1978). 즉 생활습관 혹은 생활규범 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숙도, 시간, 인내심이 요구되는데 새로 결혼한 부부들의 미성숙, 자녀의 결혼에서 비롯되는 부모의 심리적 상실감이나 정서적 불안, 혹은 세대차이등으로 새로운 관계형성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유가효, 1976; 이기숙, 1984).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갈등은 In-Law의 관계이며 남편과 장모와의 사이에 갈등이 전체의 42%이고 부인과 시어머니간의 갈등이 전체의 50%였으며 기타 식구들과의 갈등은 소수에 불과했다(Landis & Lindis, 1977).

(2) 관리적 체계에서의 부부갈등

가. 의사소통에서의 부부갈등

대화나 갈등의 시기동안 기존 남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의사표현, 의사전달과 수용, 의사에

대한 반응과 민감성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대체로 남편은 중립적 의사를, 부인은 긍정적 의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Noller, 1982; Notarius and Johnsob, 1982). 여성은 결혼생활에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남편의 의중을 잘 예상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으로 비롯되는 갈등은 여성과 남성의 의사소통 방법과 수용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갈등에 있어서 부인은 문제의 진술만으로 끝나고 남편은 부인과의 불일치하게 된다(J. Walker, 1989).

의사소통은 체계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불충분한 의사소통은 갈등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한 메시지의 송·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표나 관심에 있어서 상반되는 것을 인식하거나, 혹은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 장애를 인식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Josep P. Folger and Marshall Scott Poole, 1984).

나. 재정관리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

김숙이(1988)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가 증가할수록 경제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Gross(1980)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Booth and White(1980, 김혜경, 1987에서 재인용)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결혼이 부채를 안고 있는 결혼보다 이혼을 좀더 자주 생각했다고 보고했다. Duvall(1977)은 결혼 초기에는 수입이 가장 작은 시기로 자녀의 출생은 더욱 수입의 압박을 가중시켜 어려움이 많다고 했으며, Pirtropito와 Simeaur(1979)는 돈이 결혼갈등의 주요 근원일뿐만 아니라 빛 또한 결혼에서 가장 큰 위기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돈이 기본적인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자신의 안정, 자존감, 타인의 인정과도 관계되어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금전사용방법, 소비유형, 소득의 주 소비자가 누구인가, 주요 수입원이 누구인가, 금전관리에 대한 태도 등이 서로

상반하는데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인 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가사노동 분담에서의 부부갈등

가사노동의 분담과 결혼의 복지, 개인의 복지등과는 분명한 관계를 제시할 수 없으나, 남편은 자기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분담에 만족하며(Schfer and Keith, 1981; Brockner and Adsit, 1986), 부인이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더 많이 담당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부인에 대해 덜 불평한다(Brnett and Baruch, 1987; Benin and Agsitinnelli, 1988; Yogev and Brett, 1985). 남편과는 달리 부인의 경우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과 결혼상의 복지와 분명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연구에 의하면 남편이 가사노동 분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부인의 만족은 증가되며, 부부가 같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인과 부수적인 입장인 남편의 수행상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Pleck, 1985). 심지어 Rosen(1987)은 노동계층의 부인은 남편의 도움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며, 남편이 가사노동 분담을 해주는 경우에 취업부인은 전업부인에 비해 우울함에 빠지는 일이 적어진다고 했다(Ross et al, 1983).

3) 산출로서의 가정생활만족도

Newton(1984)은 생활만족도가 요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관리행동의 결과이므로 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관리자는 관리만족도가 크고 관리만족도가 큰 관리자는 생활만족도가 크다고 했다. Campbell, Convers & Rodgers(1976)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관리만족도가 크면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도 크다고 했으며, Andrew & Withey(1976)는 관리만족도가 크면 생활의 질(전체적인 생활만족)에 대한 만족도도 크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가정생활만족은 전체적인 생활만족, 적게는 관리만족, 생활의 질, 복지감등으로 표현되며 각 가정의 요구와 관리과정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관련변인들을 살펴볼때 부부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직업, 가정소득, 가정생활주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산출로서의 가정생활만족도

Newton(1984)은 생활만족도가 요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관리행동의 결과이므로 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관리자는 관리만족도가 크고 관리만족도가 큰 관리자는 생활만족도가 크다고 했다. Campbell, Convers & Rodgers(1976)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관리만족도가 크면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도 크다고 했으며, Andrew & Withey(1976)는 관리만족도가 크면 생활의 질(전체적인 생활만족)에 대한 만족도도 크다고 했다.

이상과 같이 가정생활만족은 전체적인 생활만족, 적게는 관리만족, 생활의 질, 복지감등으로 표현되며 각 가정의 요구와 관리과정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관련변인들을 살펴볼때 부부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직업, 가정소득, 가정생활주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등을 고려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형성기가정 부부와 확대기 가정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변수와 갈등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의 갈등정도는 투입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투입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부부 전체의 갈등정도에 따라서 가정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부의 갈등 : 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측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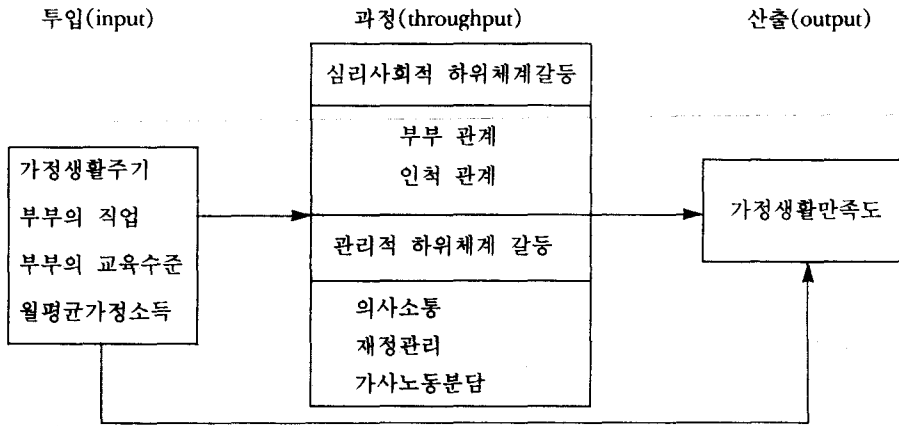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갈등점수를 합한 것으로 부부가 함께 지각한 가정관리상의 갈등정도이다.

남편의 갈등 : 형성기와 확대기 가정의 남편이 지각한 갈등의 정도이다.

부인의 갈등 : 형성기와 확대기 가정의 부인이 지각한 갈등의 정도이다.

가정생활만족도 : 부부 한쌍이 함께 느낀 가정생활만족의 정도이며, 남편의 가정생활만족도나 부인의 가정생활만족도는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각각 지각한 가정생활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투입요소인 되는 인구통계적인 문항, 가정관리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부부의 갈등정도를 나타내는 즉 심리사회체계내의 갈등정도와 관리적 하위체계내에서의 갈등문항, 산출요소인 관리만족, 여가만족, 결혼만족, 재정만족으로 구성된 가정생활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투입변수는 부인과 남편의 학력수준과 직업, 가정생활주기, 월평균가정소득에 관한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중 직업은 김영모(1980)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월평균 가정소득은 월급 외에 보너스와 자산소득을 포함하였고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는 부인의 월급도 포함시켰다. 가정생활주기는 첫자녀의 출생을 중심으로 무자녀인 형성기와 유자녀인 확대기를 구분했는데 이는 한국

인구보건원(1987)에서 사용한 주기 단계를 적용하였다. 부부갈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심리사회적 하위체계내에서는 부부관계와 인척관계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관리적인 하위체계에서는 의사소통과 재정문제, 가사노동분담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문항수는 각 영역별로 4문항씩 16 문항이며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다. 가정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결혼만족과 재정만족, 여가만족의 각 3문항과 관리만족의 2문항으로 총 14 문항이며,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관리만족도 점수는 가중치를 고려하였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의 정도가 낮다.

부부갈등 문항간의 Cronbach's α 는 부부관계갈등은 .872, 인척관계갈등은 .906, 의사소통 갈등은 .897, 재정관리 갈등은 .898, 가사노동 분담 갈등은 .741이었으며 전체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α 는 .899였다. 내용 타당도는 가정관리학석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형성기, 확대기 가정을 유층표집하여 조사하였다. 1990년 9월 16일 부터 21일까지 1차 예비조사와 9월 25일부터 9월 30일 까지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후 설문지 일부 문항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500가구의 부부1000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가정소득, 거주지역, 가정생활주기 등을 고려한 유의적인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확대기 가정을 선별하기 위해 성북구의 저소득층 탁아소 2곳을 선택했고, 형성기 가정을 선별하기 위해 노원구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경험이 없는 부인을 선택하였는데 부부 모두가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총 표본수는 336가구의 672부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투입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투입변수에 따라 부부갈등의 정도와 가정생활 만족의 정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였고 F-test와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가정의 전체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전체(N=336)		형성기(N=122)		확대기(N=214)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가 족 수	2명 이하	103	30.7	102	82.3	1	0.5
	3명~4명	174	51.8	17	13.7	158	74.0
	5명 이상	59	17.6	5	4.0	54	25.5
부 인 연 령	26세 이하	44	13.1	40	33.1	4	1.9
	27~30세	132	39.3	53	43.8	78	36.4
	31세 이상	160	47.6	28	23.1	132	61.7
남 편 연 령	29세 이하	43	12.8	31	25.6	12	5.6
	30~33세	144	42.9	62	51.3	81	37.9
	34세 이상	192	44.3	28	23.1	121	56.5
부 인 교 육 수 준	전문대 이하	205	61.0	65	53.7	139	65.0
	대졸 이상	131	39.0	56	46.3	75	35.0
남 편 교 육 수 준	전문대 이하	137	30.8	41	33.9	96	44.9
	대졸 이상	199	59.2	80	66.1	118	55.1
부 인 직 업	전 문 직	94	28.0	32	26.4	47	22.0
	비 전 문 직	35	10.4	5	4.1	30	14.0
	주 부	207	61.6	69	57.0	137	64.0
남 편 직 업	전 문 직	211	62.8	89	73.6	121	56.5
	비 전 문 직	120	37.2	30	26.4	90	43.5
가 정 소 득	85만원이하	79	23.5	38	31.4	41	19.2
	86~140만원	154	45.8	55	45.4	99	46.2
	141만원이상	103	30.7	28	23.1	74	34.6
결 혼 지 속 년 수	1~2년	104	31.0	81	66.9	23	10.7
	3~4년	60	17.8	18	14.9	42	19.7
	5년 이상	172	51.2	22	18.2	149	69.6
주 택 소 유	자 가	126	37.5	46	38.0	76	36.9
	타 가	210	62.5	75	62.0	135	63.1

*각 항목의 빈도차이는 결측값(missing value)에 의한 것임.

표 2. 투입변수에 따른 가정관리과정상의 갈등정도 (N=336)

변수	집단	빈도	부부 관계		인척 관계		심리사회체계		의사 소통		재정 관리		가사노동분담		관리적체계		전체 갈등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가정 생활 주기	형성기	121	15.96(4.16)	15.68(4.93)	47.45(11.89)	17.21(4.62)	19.56(4.75)	21.99(3.39)	58.76(8.58)	106.21(18.51)								
	확대기	214	17.98(4.37)	16.13(4.90)	51.10(11.83)	18.51(4.65)	21.13(5.05)	21.50(3.12)	61.15(9.46)	112.24(19.74)								
	T 값		-0.95***	-0.834	-2.703***	-2.467***	-2.846***	1.298	-2.352**	-2.795**								
부인의 역할	전문대이하	205	17.83(4.51)	16.17(4.93)	34.00(8.30)	18.80(4.87)	21.58(4.87)	21.13(3.01)	61.51(9.42)	112.51(20.08)								
	대졸 이상	131	16.27(4.04)	15.63(4.16)	31.90(7.25)	16.86(4.08)	18.94(4.76)	22.53(3.36)	58.34(8.53)	106.20(17.96)								
	T 값		3.29 **	1.06	2.436**	3.945***	4.919***	-3.898***	3.196***	3.000**								
남편의 직업	전문대이하	137	18.06(4.33)	16.20(5.25)	51.38(12.70)	19.12(4.86)	22.01(4.92)	21.34(2.95)	62.47(9.16)	113.85(19.75)								
	대졸 이상	199	16.65(4.36)	15.79(4.18)	48.67(11.29)	17.31(4.39)	19.54(4.79)	21.91(3.38)	58.77(8.95)	107.43(18.89)								
	T 값		2.916**	0.75	2.055*	3.478***	4.575***	-1.650	3.677***	3.004**								
직업	전문직	94	16.63(4.17)	16.44(.48)	49.60(11.89)	17.13(4.46)	19.48(4.68)	22.91(3.36)	59.52(8.72)	109.12(18.94)								
	비전문직	35	17.97(4.64)	15.15(.87)	50.53(13.32)	19.29(4.69)	22.20(3.95)	21.26(3.53)	62.74(8.09)	113.27(19.45)								
	T 값		-1.502	.726	-.384	-2.36 *	-3.00 ***	2.410**	-1.969*	-1.100								
남편의 직업	전문직	211	16.53(4.07)	15.92(4.26)	48.67(11.00)	17.36(4.49)	19.76(4.72)	21.99(3.18)	59.10(8.75)	107.77(18.23)								
	비전문직	120	18.26(4.63)	15.85(5.17)	51.16(13.07)	19.17(4.77)	21.75(5.20)	21.18(3.10)	62.09(9.51)	113.25(20.59)								
	T 값		-3.538***	.125	-1.850*	-3.40 ***	-3.453***	2.67 *	-2.826	-2.501**								
소 득	85만원이하	79	9.089	16.861	52.766	18.962	22.494	21.835	62.835	115.601								
	86~140	103	8.466	16.045	49.636	18.312	20.825	21.721	60.857	110.494								
	141이상	154	8.455	15.136	47.694	16.951	18.650	21.380	57.437	105.131								
특	F 값		1.97	3.17 *	4.13 **	4.71 **	14.83 ***	0.47	8.64 ***	6.76 ***								

*P<.05, **P<.01, ***P<.001

IV. 결과 및 해석

1. 투입변수에 따른 가정관리 과정상의 부부갈등의 정도<표 2>

1) 가정생활주기

가정생활주기별로 부부의 갈등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심리사회체계적 갈등정도와 관리체계적 갈등정도 모두에서 주기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두 하위체계 모두에서 형성기 가정 부부보다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하위체계에서는 부부관계 갈등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관리적 하위체계에서는 의사소통, 재정관리에서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LeMaster(1957)가 주장한 신혼부부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위기'라고 표현한 갈등정도의 차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갈등정도도 형성기에 비해 확대기의 의사소통 갈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확대기에 의사소통도가 떨어지고 있어 자녀의 유무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숙(198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으나 결혼년수의 증가에 따라 권위형의 의사소통유형이 줄어든다고 보고한 서수경(199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재정관리 갈등정도 역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확대기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초기에는 수입이 가장 적은 시기로 자녀의 출생은 더욱 재정적인 압박을 가증시킨다고 한 Duvall(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갈등정도는 주기에 따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어느 가정이나 경험하는 갈등이므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정도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해보면, 인척관계를 제외한 심리적 하위체계 갈등정도와 관리적인 하위체계 갈등정도는 모두 집단간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부관계 갈등정도는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갈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부관계 갈등의 정도가 높다고 지적한 김혜경(1987)의 결과와는 상반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재정관리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집단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갈등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회생형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원효종(1984), 송성자(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재정관리에서도 역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Williams와 Berry(1984)가 부인의 학력과 재정문제정도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나 부인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재정문제를 적게 경험한다는 임정(198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남편과의 대화가 보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의사소통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부의 갈등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면 인척관계를 제외한 심리사회적 체계에서의 갈등정도와 관리적 하위체계 갈등정도 모두 집단간 유의차가 있었다.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두 체계 모두에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갈등정도는 낮은 집단에 비해 갈등정도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의사소통 유형은 대립관계보다는 보완적이거나 대등한 관계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적다는 이정순(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화제의 다양성, 표현력, 사물에 대한 통찰력,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이 작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갈등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여겨지며, 부부관계에서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재정관리 갈등정도는 남편의 직업이나 소

(N=336)

부록 2.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부인연령	1.00																								
2. 남편연령	0.76 ^{***}	1.00																							
3. 가족수	0.34 ^{***}	0.29 ^{***}	1.00																						
4. 가정생활 주기	0.44 ^{***}	0.38 ^{***}	0.59 ^{***}	1.00																					
5. 부인교육 수준	0.22 ^{***}	0.21 ^{***}	-0.09 ^{***}	-0.10 ^{***}	1.00																				
6. 남편교육 수준	0.19 ^{***}	0.20 ^{***}	-0.14 ^{***}	-0.11 ^{***}	0.76 ^{***}	1.00																			
7. 결혼형성 유형	-0.04 ^{***}	-0.07 ^{***}	0.02 ^{***}	0.08 ^{***}	0.09 ^{***}	0.08 ^{***}	1.00																		
8. 결혼년수	0.78 ^{***}	0.69 ^{***}	0.43 ^{***}	0.50 ^{***}	-0.39 ^{***}	-0.39 ^{***}	-0.06 ^{***}	1.00																	
9. 주택소유	-0.03 ^{***}	0.01 ^{***}	0.23 ^{***}	0.02 ^{***}	-0.09 ^{***}	-0.10 ^{***}	0.06 ^{***}	0.05 ^{***}	1.00																
10. 부인직업	0.10 ^{***}	0.12 ^{***}	0.03 ^{***}	0.14 ^{***}	-0.28 ^{***}	-0.21 ^{***}	-0.10 ^{***}	0.22 ^{***}	0.01 ^{***}	1.00															
11. 남편직업	0.15 ^{***}	0.14 ^{***}	0.13 ^{***}	0.07 ^{***}	-0.48 ^{***}	-0.53 ^{***}	-0.14 ^{***}	0.25 ^{***}	0.15 ^{***}	0.16 ^{***}	1.00														
12. 가정소득	0.02 ^{***}	0.02 ^{***}	0.08 ^{***}	0.16 ^{***}	0.37 ^{***}	0.33 ^{***}	0.12 ^{***}	-0.04 ^{***}	-0.15 ^{***}	-0.35 ^{***}	-0.38 ^{***}	1.00													
13. 부부관계	0.42 ^{***}	0.36 ^{***}	0.17 ^{***}	0.22 ^{***}	-0.20 ^{***}	-0.23 ^{***}	0.01 ^{***}	0.40 ^{***}	0.04 ^{***}	0.05 ^{***}	0.22 ^{***}	-0.16 ^{***}	1.00												
14. 인척관계	0.22 ^{***}	0.19 ^{***}	0.04 ^{***}	0.04 ^{***}	-0.06 ^{***}	-0.06 ^{***}	0.01 ^{***}	0.16 ^{***}	-0.00 ^{***}	0.06 ^{***}	0.07 ^{***}	-0.15 ^{***}	0.55 ^{***}	1.00											
15. 심리사회 체계감동	0.36 ^{***}	0.31 ^{***}	0.12 ^{***}	0.14 ^{***}	-0.15 ^{***}	-0.17 ^{***}	0.01 ^{***}	0.32 ^{***}	0.02 ^{***}	-0.00 ^{***}	0.17 ^{***}	-0.18 ^{***}	0.87 ^{***}	0.89 ^{***}	1.00										
16. 의사소통	0.27 ^{***}	0.28 ^{***}	0.30 ^{***}	0.12 ^{***}	-0.22 ^{***}	-0.23 ^{***}	-0.01 ^{***}	0.28 ^{***}	0.10 ^{***}	0.07 ^{***}	0.21 ^{***}	-0.18 ^{***}	0.67 ^{***}	0.82 ^{***}	0.73 ^{***}	1.00									
17. 재정관리	0.25 ^{***}	0.23 ^{***}	0.11 ^{***}	0.15 ^{***}	-0.29 ^{***}	-0.28 ^{***}	-0.07 ^{***}	0.32 ^{***}	0.15 ^{***}	0.10 ^{***}	0.25 ^{***}	-0.34 ^{***}	0.54 ^{***}	0.49 ^{***}	0.58 ^{***}	0.61 ^{***}	1.00								
18. 가사노동 분담	-0.11 ^{***}	-0.10 ^{***}	-0.03 ^{***}	-0.08 ^{***}	0.20 ^{***}	0.11 ^{***}	0.11 ^{***}	0.01 ^{***}	-0.18 ^{***}	-0.04 ^{***}	-0.22 ^{***}	-0.12 ^{***}	0.10 ^{***}	-0.05 ^{***}	0.00 ^{***}	0.03 ^{***}	-0.05 ^{***}	1.00							
19. 관리적 감동	0.18 ^{***}	-0.22 ^{***}	-0.24 ^{***}	0.20 ^{***}	0.22 ^{***}	-0.07 ^{***}	0.03 ^{***}	0.11 ^{***}	-0.14 ^{***}	0.15 ^{***}	0.20 ^{***}	-0.07 ^{***}	-0.10 ^{***}	-0.10 ^{***}	-0.13 ^{***}	-0.21 ^{***}	-0.09 ^{***}	0.32 ^{***}	1.00						
20. 결혼만족	0.37 ^{***}	0.35 ^{***}	0.21 ^{***}	0.21 ^{***}	-0.44 ^{***}	-0.45 ^{***}	-0.06 ^{***}	0.46 ^{***}	0.12 ^{***}	0.38 ^{***}	-0.27 ^{***}	0.62 ^{***}	0.43 ^{***}	0.59 ^{***}	0.69 ^{***}	0.56 ^{***}	-0.07 ^{***}	0.63 ^{***}	0.61 ^{***}	1.00					
21. 재정만족	0.27 ^{***}	0.27 ^{***}	0.22 ^{***}	0.16 ^{***}	-0.33 ^{***}	-0.35 ^{***}	-0.01 ^{***}	0.35 ^{***}	0.27 ^{***}	0.09 ^{***}	0.35 ^{***}	-0.37 ^{***}	0.48 ^{***}	0.41 ^{***}	0.50 ^{***}	0.53 ^{***}	0.70 ^{***}	-0.07 ^{***}	0.63 ^{***}	0.61 ^{***}	1.00				
22. 여가만족	0.24 ^{***}	0.20 ^{***}	0.23 ^{***}	0.20 ^{***}	-0.23 ^{***}	-0.27 ^{***}	-0.00 ^{***}	0.30 ^{***}	0.09 ^{***}	-0.05 ^{***}	0.13 ^{***}	-0.08 ^{***}	0.41 ^{***}	0.28 ^{***}	0.39 ^{***}	0.41 ^{***}	0.45 ^{***}	0.01 ^{***}	0.45 ^{***}	0.54 ^{***}	0.50 ^{***}	1.00			
23. 관리만족	0.20 ^{***}	0.20 ^{***}	0.24 ^{***}	0.21 ^{***}	-0.16 ^{***}	-0.22 ^{***}	0.01 ^{***}	0.24 ^{***}	0.13 ^{***}	-0.06 ^{***}	0.16 ^{***}	-0.04 ^{***}	0.35 ^{***}	0.32 ^{***}	0.38 ^{***}	0.42 ^{***}	0.37 ^{***}	0.05 ^{***}	0.44 ^{***}	0.50 ^{***}	0.52 ^{***}	0.59 ^{***}	1.00		
24. 가정생활 만족	0.34 ^{***}	0.32 ^{***}	0.26 ^{***}	0.24 ^{***}	-0.37 ^{***}	-0.41 ^{***}	-0.04 ^{***}	0.43 ^{***}	0.16 ^{***}	0.06 ^{***}	0.32 ^{***}	-0.23 ^{***}	0.57 ^{***}	0.44 ^{***}	0.57 ^{***}	0.63 ^{***}	0.63 ^{***}	-0.04 ^{***}	0.65 ^{***}	0.85 ^{***}	0.80 ^{***}	0.78 ^{***}	0.73 ^{***}	1.00	
평균(X)	30.42	33.22	3.44	0.64	3.78	4.34	2.01	5.08	1.85	5.55	3.30	12.53	17.23	15.96	33.19	18.05	20.55	21.67	60.27	13.86	17.03	16.47	9.78	70.82	
편차(SD)	3.45	3.54	1.39	0.49	1.19	1.21	0.67	3.22	0.94	1.93	1.15	54.28	4.39	40.65	70.94	40.67	4.99	3.22	9.20	3.34	3.18	3.42	2.00	12.33	

*P<.05, **P<.01, ***P<.001

득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 부록 2에 제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재정관리 갈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은 모든 갈등영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갈등정도가 적었으나 가사노동분담 영역에서만 부인의 경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갈등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편의 전체 갈등정도가(113점) 부인의 갈등점수(112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부인의 직업

부인의 직업에 따른 부부의 갈등정도는 관리적 하위체계 갈등정도에서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인의 직업이 전문적인 집단이 비전문직 집단보다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심리사회적체계의 갈등정도는 부인의 직업에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라고 여겨진다. 재정관리의 갈등정도는 부인의 직업이 비전문직인 부부가 전문직인 부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갈등을 증가시킬지는 모르나, 직업때문에 결혼생활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단지 외관적인 모습이라고 견해를 피력한 Goode(196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취업부인들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부담으로 부부관계가 상호의존하기때문에 직장생활이 오히려 가정생활의 만족으로 이끈다는 이동원(1976)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부인의 직업활동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 Burke와 Weir(1973 ; 안선영, 1987에서 재인용)는 부인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남편은 부인에 대한 부양체계의 역할을 잃게 됨으로서 부부간의 갈등이 유발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적은 재정관리에 대한 갈등과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갈등의 두가지 영역을 다 포함한다. 이것은 전통사회는 가부장적 권위체제로서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왔다면 현대사회는 평등사상에서 역할분담의 모호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4) 남편의 직업

남편의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의 정도를 검증했는데, 남편의 직업이 비전문직인 집단의 갈등정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사소통갈등에서는 직업적 지위가 낮은 비전문직 집단이 전문직에 비해 의사소통의 갈등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Komarovsky가 지적한 것처럼 낮은 직업적 지위를 가진 남자들일수록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Adams ; 1980 에서 재인용), 부부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부부관계에서도 자신의 직업적 지위가 낮아짐에 따라 부부관계 갈등정도는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안선영(1987), 최자령(1991)의 결과와 일치하며, 재정관리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은 남편의 직업이 소득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전문직일수록 소득면에서 보상이 더 높아 갈등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Daniewicz(1978)과 Williams, Nall과 Deck(1976)의 남편의 직업과 재정문제 심각성과 관계가 있다(김연정, 1991에서 재인용)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직집단이 비전문직 집단보다 부부관계갈등 정도가 낮은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일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부부관계에 응하며, 부인 역시 남편으로 인한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대해 만족감이 높아지므로 부부관계 갈등정도가 낮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부부 적응도가 높다는 강은령(198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5) 월평균 가정소득

월평균가정소득에 따라서 부부갈등 정도가 차이는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척관계에서는 모든 투입변수중 유일하게 집단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경우 시가나 처가에 대한 방문의 여유도 많고 남편의 경우 사회적인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처가에서 대접받는다는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의사소통 갈등정도는 저소득집단과 중간소득집단은 차이가 없으나 고소득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저소득집단 일수록 의사소통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는 김혜경(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재정관리갈등 정도는 저소득집단의 갈등정도가 가장 높고, 중간소득집단, 고소득집단의 순으로 재정관

리 갈등정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효재, 이동원(1979)는 저소득층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 소비를 담당한 부인과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Galligan과 Bahr(1978)는 높은 소득이 결혼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소득은 결혼해체의 비율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 결과는 Coleman(1984)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재정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지출방법 문제는 갈등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저소득은 극단적으로 결혼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각 투입변수들에 따른 갈등정도차이를 총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남편의 직업, 교육수준, 가정소득, 가정생활주기의 순으로 집단간 차이가 큰것으로 나타난것으로 미루어 부부관계는 남편의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 더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척관계는 부인의 직업, 가정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인척관계 개선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정도는 투입변수별 집단간 차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소득에서의 집단간 차이가 가장 큰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재정관리에서의 갈등정도는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가정소득에 대해서 민감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분담에 있어서 갈등정도는 소득에는 거의 무관하였고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현저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지만 결코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대한 반응이라고 여겨진다.

2. 투입변수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표 3>

표 3. 투입변수에 따른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

(N=336)

투입변수	집단	빈도	결혼 만족	재정 만족	여가 만족	관리 만족	가정생활만족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평균(편차)
가정생활주기	형성기	121	12.93(3.29)	16.26(3.40)	15.53(3.28)	18.41(3.69)	63.13(10.95)
	확대기	214	14.39(3.27)	17.46(3.47)	17.02(3.40)	20.21(4.05)	69.07(11.42)
	T 값		-3.890***	-3.061**	-3.937***	-4.036***	-4.638***
부인의 교육수준	전문대이하	205	14.89(3.31)	17.81(3.41)	16.98(3.50)	20.08(4.03)	69.75(11.58)
	대졸이상	131	12.24(2.70)	15.80(3.24)	15.68(3.16)	18.78(3.86)	62.50(10.13)
	T 값		8.042***	5.423***	3.529***	2.935**	5.876***
남편의 교육수준	전문대이하	137	15.30(3.42)	18.18(3.58)	17.18(3.61)	20.44(4.20)	71.09(12.07)
	대졸이상	199	12.86(2.91)	16.24(3.19)	15.99(3.22)	18.96(3.77)	64.06(10.32)
	T 값		6.814***	5.097***	3.091**	3.362***	5.725***
부인의 직업	전문직	94	12.76(2.72)	16.15(3.07)	16.29(3.15)	19.43(3.90)	64.64(9.95)
	비전문직	35	15.89(3.09)	18.94(3.06)	18.49(3.67)	22.00(4.50)	75.31(11.79)
	T 값		-5.266***	-4.562***	-3.129**	-3.197**	-5.145***
남편의 직업	전문직	211	12.89(3.01)	16.21(3.07)	15.97(3.31)	18.90(3.84)	63.98(10.45)
	비전문직	120	15.43(3.29)	18.26(3.71)	17.29(3.52)	20.65(4.09)	71.63(11.80)
	T 값		-6.928***	-5.110***	-3.367***	-3.893***	-6.101***
월평균가정소득	85만원이하	79	15.025	18.608	16.570	19.797	70.000
	86~145	103	13.896	17.175	16.494	19.688	67.253
	146이상	154	12.903	15.592	16.399	19.204	64.068
	F 값		9.49***	18.81***	.08	.62	6.17***

P<.01, *P<.001

1) 가정생활주기

가정생활주기별로 가정생활만족도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확대기에 비해 형성기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결과는 확대기의 가정생활만족이 형성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차이를 검증한 이종숙(1989)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녀출산이라는 가족체계의 한 변환의 사건에 대해 부부의 만족도가 시간의 부족, 돈의 부족, 배우자 관심의 자녀로의 이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만족의 중단의 이유는 "새로운 부모구실"에 대한 이미지가 허물어질수록 자녀양육상의 남편의 참여가 부족하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남편의 이해부족으로 더 고통 받게 되기 때문이다(Rubin et al, 1988 ; 이해란, 1984 ; 원정선, 1989). Belsky, Lang and Huston(1986), Cowan과 그 동료(1987)들도 자녀가 생김후 갈등이 증가하고 가사노동 분담이 변하게 되어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불일치가 절정에 달하고 부인의 불만족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는 부인의 우울이 증가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투사하게 되며, 부부관계에서도 부인의 소원한 태도와 남편의 아기에 대한 질투 등으로 인해 불만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는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모두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 여가만족, 재정만족, 관리만족등의 모든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Nye(1963), Scanzoni(1970), Burke & Weir(1976), Spanier(1976), Safilois-Rothschild & Dijkers(1978), Staines et al(1978), Nye(1979), Rhyne(1981), Glenn(1982), 최규련(1988)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재정만족의 차이는 임정(1988)과 김연정(1989)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계소득 적정도를 높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여가만족도에서는 여가활동의 참여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

수로 교육수준을 지정한 Settle(1978 ; 홍성희, 1991에서 재인용)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이 교육수준의 영향은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증진보다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사와 활동의 범위를 증진시키므로써 여가만족에 영향을 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볼때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으며, 낮은 교육수준과 하류층일수록 낮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수입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3) 부인의 직업

부인의 취업에 따른 가정생활만족의 차이를 보면 결혼만족, 재정만족, 관리만족, 여가만족, 전체생활만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비전문직여성은 전문직여성보다 부부적응이 훨씬 낮으며(신성자, 1982),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결혼만족이 높고(이동원, 1976) 부인의 직업지위에 따라 자유직, 전문직, 근로직 순으로 결혼만족이 낮아진다(유영주, 1979)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직업보다는 직업에 대한 태도, 취업동기, 남편의 지지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인 연구(안희순, 1988)도 있는데, 취업에 대해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로지 수입만을 위하여 취업한 비전문직 여성일수록 결혼만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4) 남편의 직업

남편의 직업에 따른 가정생활만족은 결혼만족, 재정만족, 여가만족, 관리만족, 전체 가정생활만족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대체로 가정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적 지위가 낮은 남편은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으며(Scanzoni, 1978 ; Blood 와 Wolfe, 1960) 남편의 직업적 명성이 높은 경우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다(Glenn, 1982)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들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Scanzoni(최규련, 1988에서 재인용)는 호혜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의 높은 수입과 사회적 명성은 호혜적 과정에 의하여 아내의 서비스와 같은 도구적 보상과 감정이입, 애정표현과 같은 표현적 보상으로 교환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결혼만족의 느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5) 가정소득

가정소득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는 결혼만족, 재정만족, 전체가정생활만족의 정도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Williams와 Berry(1984; 김연정, 1991에서 재인용)가 소득이 가계소득적정도인지, 재정문제 인지, 경제적 산출 및 경제적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지적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Campbell(1976)이 지적한 대로 객관적인 소득지표는 주관적복지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투입변수별 부부의 가정생활만족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만족은 월평균 가정소득과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의미있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재정만족은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만족차이가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가만족은 다른것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 인 반면 월평균소득과는 거의 무관한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여가만족과 관리만족은 소득의 고저보다는 다른 생활여건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전체 가정생활만족은 어느 한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수들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갖추어질때 집단간 차이를 보인다는것을 알 수 있다.

3. 부부갈등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표 4)

부부갈등점수를 합산하여 응답자의 점수별로 상·중·하 세 집단으로 분류한후, 각 갈등영역에 따른 가정생활만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관계갈등정도에 따라서는 결혼만족, 재정만족, 여가만족, 관리만족, 가정생활만족 등 모든 영역에서 부부관계 갈등정도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부관계 갈등의 정도가 아주 낮은 집단의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부부관계 갈등의 정도가 아주 높은 집단의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부부의 애정과 성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Rhyne(1981)의 연구결과에서도 애정표현과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은 결혼만족도와 크게 관련이 되며, 역시 같은 맥락에서 Lewis와 Spiner(1979)의 연구에서도 성적조화와 만족정도는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두번째로 인척관계 갈등의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는 결혼만족, 재정만족, 여가만족, 관리만족, 전체 생활만족도에서 인척관계 갈등정도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척관계 갈등정도가 아주 낮은 집단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결과는 인척관계가 가족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Lewis와 Spiner(1979)가 지적한대로 배우자의 공동체와의 유대가 클수록 결혼의 질은 높아진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세째, 의사소통 갈등정도에 따라서 가정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의사소통정도가 높은 집단의 만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 이 결과는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결혼과 관계가 있으며(Udry, 1973; 김혜선, 1982) 부부간의 의사소통상의 실패는 불행하거나 실패한 결혼생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Bienvenu, 1978; 왕석순, 1989에서 재인용). 네째, 재정관리 갈등정도에 따라서 가정생활만족도는 전 영역에서 갈등정도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관리 갈등정도가 낮은 집단의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재정관리의 한 분야인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의 능력수준이 순자산과 재정만족도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제시한 Titus, Fanslow와 Hira(1989; 김연정, 1991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섯째,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갈등정도에 따라서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갈등정도가 낮은 집단의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Thourburn(1972)의 연구에서 부부가 가사에 있어서 완

표 4. 부부갈등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N=336)

갈등	집단영역점수	결혼 만족		재정 만족		여가 만족		관리 만족		가정생활만족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부부관계	하	95	11.516	C	14.853	C		C	18.295	C	62.653	C
	중	183	14.000	B	17.355	B	16.836	B	19.454	B	71.557	B
	상	53	17.241	A	19.552	A	18.345	A	22.000	A	81.845	A
	F 값		77.49***		43.25***		27.02***		17.04***		60.03***	
인척관계	하	136	12.353	C	15.500	C	15.368	B	18.206	C	64.772	C
	중	160	14.619	B	17.894	B	17.150	A	20.225	B	74.156	B
	상	40	15.925	A	18.950	A	17.525	A	21.550	A	78.000	A
	F 값		30.01***		27.24***		12.94***		16.25***		34.89***	
심리사회체계갈등	하	117	11.974	C	15.179	C	15.197	C	18.239	C	63.838	C
	중	173	14.191	B	17.509	B	16.850	B	19.769	B	72.439	B
	상	46	17.391	A	19.913	A	18.304	A	22.174	A	82.457	A
	F 값		61.41***		42.22***		17.25***		18.04***		53.56***	
의사소통	하	100	11.060	C	14.890	C	14.810	C	17.920	C	61.870	C
	중	186	14.409	B	17.349	B	16.833	B	19.656	B	72.296	B
	상	50	17.400	A	20.100	A	18.460	A	17.920	A	83.200	A
	F 값		107.26***		50.62***		24.13***		25.26***		76.90***	
재정관리	하	57	11.070	C	13.175	C	13.912	C	17.895	B	58.754	C
	중	178	13.567	B	16.640	B	16.303	B	19.000	B	69.573	B
	상	101	15.941	A	19.881	A	18.218	A	21.505	A	79.812	A
	F 값		52.40***		118.98***		35.17***		20.7***		81.62***	
가사노동분담	하	79	14.886	A	17.544	A	16.987	A	19.722	A	73.468	A
	중	215	13.558	B	16.921	A	16.158	A	19.386	A	69.888	A
	상	42	13.452	B	16.595	A	17.119	A	20.190	A	70.571	A
	F 값		5.03**		1.30		2.57		.79		2.47	
관리적체계갈등	하	83	11.084	C	14.072	C	14.518	C	17.518	C	60.241	C
	중	211	14.223	B	17.583	B	16.701	B	19.649	B	72.265	B
	상	42	17.500	A	20.071	A	19.190	A	23.190	A	84.429	A
	F 값		80.87***		67.99***		32.23***		33.50***		87.32***	
전체갈등	하	99	11.449	C	14.490	C	14.653	C	17.735	C	61.653	C
	중	206	14.335	B	17.689	B	16.869	B	19.738	B	72.655	B
	상	32	18.156	A	20.531	A	19.500	A	24.062	A	87.031	A
	F 값		79.22***		62.83***		32.94***		37.16***		86.04***	

*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1, * P<.001

전히 일치할 때 결혼만족이 크며,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일수록 가정생활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는 Hayward(197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가사노동 분담이 여전히 평등주의적 신화로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의 관심사

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있으며, 부인 역시 전통적인 성에 의한 역할분담을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거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기여분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부인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노동 분담에 따른 다른 영역별 만족도의 차이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가사노동 불평등성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있어도 그 영향에 관한 연구는 한정되어 있는 탓에 비교할만한 근거가 별로 없지만 Pleack (1985)의 지적처럼 측정지표가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다.

부부갈등 영역별 생활만족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과 관리만족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갈등정도에 따라서 가장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만족과 여가만족은 재정관리에 있어서의 갈등정도에 따라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부부가 각자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가정생활 어느부분에나 적용되는 것으로서 타인들의 결합체인 부부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재정적인 여건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 분담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는 다른 갈등영역에 비해 유의차가 적은에 이는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인식자체가 부족해서 아직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탓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부의 갈등정도와 가정생활만족도는 투입변수인 가정생활주기, 부부의 교육수준, 부부의 직업, 월평균 가정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형성기에 비해 확대기 부부의 갈등정도가 높으며, 남편과 부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으며,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갈등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가정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부갈등정도에 따라 가정생활만족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부부갈등의 영역별로 재정관리 갈등정도, 의사소통 갈등정도, 부부관계갈등정도, 인척관계 갈등정도, 가사노동분담 갈등정도의 순으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체계에서 관리적인 체계의 갈등정도가 심리사회적인 체계의 갈등정도보다 높았으며, 가정생활만족도에도 역시 심리사회적인 갈등정도보다 관리적 갈등정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출생이라는 가족의 내부적인 사건이 가정생활만족도와 부부갈등의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부갈등 정도는 가사노동 분담 갈등, 재정관리 갈등, 의사소통 갈등, 부부관계 갈등, 인척관계 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노동 분담의 갈등정도는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주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불만을 사회제도상 여성의 몫으로 표현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가정부부의 갈등정도와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체계론적 입장에서 규명한 본 연구는 다음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어느 가정이든 부부갈등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어려움이나 신경이 쓰이는 정도라는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학적 논문이나 가족학적 논문에서 갈등을 다루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조사 대상 부부가 각자의 갈등정도나 만족도를 순서화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각 질문들을 4점척도로 구성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적인 면을 단지 단계화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세째, 갈등정도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각 가정의 자원변수만을 고려했고 심리적인 변수 즉, 자아통제도, 열망성취도, 성역할태도, 등의 태도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네째, 가정생활주기별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횡단적인 방법보다는 종단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야 진정한 주기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가정생활주기별 차이가 나타났다 해도 그것은 다른 특정한 투입변수와 상호작용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각 가정 부부들의 자원변수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개발 등의 보완을 통한 연구모형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주기별로 나타나는 부부 갈등 정도의 변화를 종단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정관리 과정의 하나로서 가정의 총체적인 복지와 행복을 위한 예방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고정자(1990). "한국 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숙이(1988). "도시 주부의 경제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은숙(198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혜경(1987).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문숙재(1990). "가정관리이론 정립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I)". 이화여자대학 60주년 기념교수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편 pp.119-145.
- 7) 손세권·박인화·김진숙·장현섭(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인구보건원.
- 8)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앙드레 미셀(1990).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변화순·김현주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 10) 안희순(1988). "맞벌이 부부의 역할수행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왕석순(1989).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유가효(1976).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중류층 아파트 가족의 자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30.
- 14) 유은희(1975). "한국도시부인의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윤정혜(1986).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서울과 인천의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67-88.
- 16)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이신영(1983).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영실(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요인과 성생활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정수(1990). "여자노인의 생활행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 가정학 60주년 기념교수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편 101-118.
- 21) 이창숙·유영주(1988). "한국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6.
- 22) 최규련(1987).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ALexis J. Walker. & Linda Thomson.(1989). "Gender In Families : Wa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25) Barnett, Rosalind C. & Grace K. Baruch.(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26) Benin, Mary Holland. & Joan Aagostinelli(1988). "Husband's and wives'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349-361.
- 27) Bernard.(1976). "Stress and the Family". *Journal*

- of *Home Economics* 68(5).
- 28) Blumenstein, Philip. & Pepper Schwartz.(1983). 「American Couples : Money, Work, Sex」. New York : William Morrow.
- 29) Bordin-Pepinsky.(1948) Byrne, D., Wong, T.J. (1962). "Pacial prejudice,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wwumed dissimilarity of attitudes". *Journal of Abnotmal and Social Psychology*, 에서 재 인용.
- 30) Burk, R.J. & Weir, T.(1976). "Relationships of Wife's Employment Sata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31) Burr, W.R.(1979).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9-37.
- 32) Campbell, A., P.E. Converse. & W.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33) Carol L. Wheeler. & Richard D. Arvey.(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 34) Crouter.(1987). "Proces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emental Psychology*, 23.
- 35) Duvall, E.M.(1971).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 Lippincott. Elizabeth M. Dolan & Elizabeth Scannell(1987). "Husband's and Wives' Household Work : Moving towards egalitarianism ?"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 36) Elizabeth Maret. & Barbara Finay.(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3).
- 37) Heck, R.K.(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 38) Irma H. Gross, Elizabeth W. Crandall, Marjorie M.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39) Margart Mietus Sanik(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1967~1977". *Home Ecomics Research Journal* 10(2).
- 40) Mary Holland Benin. & Joan Agostinelli.(1988). "Husband's and Wives'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 41) Newton, D.L.(1984).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42) Patricia Voydanoff. & Brenda W. Donnelly.(1989).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43) Rubel,Diane N. Alison S. Fleming,Lisa S. Hackel. & Charles Stangor.(1988). "Change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during the transition to first time motherhood : Effect of violated expectations concerning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 44) Sara Yogev.(1981). "Do Professional Women Have Egalitarian Marital Relationships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 45) Rice, A.M. & S.M. 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46) Schfer, Robert, B. & Patricia, M. Keith.(1981). "Equity in marital roles ac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47) Schultz, D.A., & Rodgers, S.F.(1975). 「Marriage, the Family and Personal Fulfilment.」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